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의 문예 담론과 식민지 조선의 매체 지형

— 『해성』(1931~32), 『제일선』(1932~33),
속간 『개벽』(1934~35)을 중심으로 —*

강 용 훈
(인천대학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해성』, 『제일선』 및 속간된 『개벽』을 대상으로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에 나타난 문예 담론을 분석했다. 1930년대 『해성』, 『제일선』 및 속간된 『개벽』지의 문예 담론은 문화 및 사회 담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들 잡지에 나타난 문예 담론을 분석하는 작업은 개벽사가 1930년대 조선의 사회·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 했는지를 드러내준다.

1931년 발간된 『해성』은 대중운동의 방향성을 고민한 시사 및 사회 문제 관련 기사가 많이 실렸던 반면, 상대적으로 문예면에 큰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 백철이 개벽사에 입사한 1931년 12월부터 『해성』에는 조선문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시각은 『해성』에 함께 실렸던 여타의 사회 관련 글들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해성』의 여러 필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문화의 일반적 모순과 조선 사회·문화의 특수성을 동시에 인식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선을 구축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해성』은 지속되는 검열을 비롯한 다층적 요인으로 인해 1932년 5월 제호를 『제일선』으로 바꿨다. 『제일선』에는 농민이나 노동자와 같이 조선의 운동을 이끌 계급적 주체를 호명하는 어휘가 사라진 대신, 그 자리를 '문화'와 '문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7년도 자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김유정 학회의 2016년 학술대회 <김유정과 동시대문학>에서 발표한 「김유정 문학과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매체 지형」을 전면 수정한 글이다.

예'가 대체하고 있다. 그 결과 『해성』에는 축소되었던 문예 지면이 『제일선』에서는 확충된다. 『해성』에 실린 문예 관련 글들과 비교해보면 『제일선』은 조선 문화의 후진성을 한층 더 강조했다. 이는 신진작가의 등용을 통해 조선문학 전반을 재편하려고 했던 『제일선』 문예면의 기획의도와 맞물려 있다. 위기 및 후진성을 부각시킬수록 그 위기와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주제, 즉 신진작가를 등장시킬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진작가를 등용하여 조선문단을 재편하려고 한 『제일선』의 문제의식은 변화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없었고 『제일선』은 1933년 3월 이후 발간되지 못했다. 개벽사는 1934년 『개벽』을 속간하며 조선문화의 방향성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다시 표출했지만, 세계체제 및 조선의 급변하는 정세를 파악하여 조선의 사회·문화 전반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해성』의 문제의식,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려고 했던 『제일선』의 문제의식은 온전히 지속되지 못했다.

개벽사는 결과적으로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매체 지형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1930년대 후반 조선사회의 공론장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까지 개벽사는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 조응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전유하려는 시도를 해나갔다. 그 시도가 지나는 의의와 한계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가 지니는 입체성을 재조명하는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개벽사, 해성, 제일선, 개벽, 1930년대, 매체, 조선신문, 김유정

1. 1930년대의 매체 지형과 개벽사 발간 잡지

1920년대 간행된 『개벽』은 식민지 조선의 문학, 더 나아가 조선의 공론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수일이 분석했듯이 1920년 6월에 창간되어 1926년 8월 강제 폐간된 『개벽』은 “지성사 전반을 아울렀으며 식민지 시대를 통틀어 독보적인 매체적 위상과 지명도를 확립”했던 것이다.¹⁾ 『개벽』이 강제적으로 중단된 이후 개벽사에서 발행된 『별건곤』은 대중적 취미독물을 “독자적 영역으로 구축”한 잡지²⁾로 평가되었지만, 최근에는 『별건곤』이

1) 최수일, 『개벽연구』, 소명출판, 2008, 13~14쪽.

2)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4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

“대중 시민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담당했다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다.³⁾ 최근의 연구에서는 『별건곤』이 1930년 전반부에는 “계몽과 취미”를 어정쩡하게 결합했지만, 1930년 후반부에는 “계몽이 약화된 ‘에로 그로 테로 추로 년센스’의 방식”을 취했다고 말한다.⁴⁾ 『별건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분석은 타당성을 지니지만, 『혜성』·『제일선』과 같이 1930년대 초반 새롭게 발행된 개벽사 발간 잡지들을 염두에 둔다면 그 분석은 부분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별건곤』에서 약화된 계몽의 기획은 1930년대 개벽사가 발간한 다른 잡지들에서 변화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의 편집자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정용서는 1931년에서 1933년까지의 시기를 개벽사 잡지 발간이 가장 활성화된 시기로 보았다. 그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개벽사는 1931년 『신여성』을 속간했으며 개벽사의 대표적 대중잡지였던 『별건곤』의 분량을 줄인 대신 『혜성』이라는 매체를 새로 발간했다. 1932년부터 『혜성』은 『제일선』으로 지명을 바꾸게 된다.⁵⁾ 『혜성』과 『제일선』은 1930년대 개벽사의 새로운 모색을 잘 드러내주는 매체이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 의의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 유석환의 연구가 1920~30년대 개벽사의 출판활동, 그리고 식민지 조선문학에 미친 천도교의 영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혜성』과 『제일선』을 부분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이다.⁶⁾ 그 연구는 선구적 의미를 지니지만, 문예면의 비중을 맞춰 『혜성』과 『제일선』의 거시적 윤곽을 그리는 데 집중한 나머지 『혜성』과 『제일선』에 나타난 구체적 담론 분석을 소홀히 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혜성』과 『제일선』의 문제의식이 1934년 속간된 『개벽』과 어떻게 연결 혹은 단절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 또한 한계로 볼 수 있다.

화연구원, 2004, 250쪽.

3) 김복순, 「별학의 탄생과 다원적 시민사회의 구상: 『별건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 대중서사학회, 2014.

4) 김복순, 앞의 글, 45쪽.

5) 이상의 내용은 정용서,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의 편집자들」, 『역사와 실학』 57, 역사실학회, 2015, 228~231쪽 및 283쪽 참조.

6) 유석환, 「개벽사의 출판활동과 근대 잡지」,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_____, 「식민지시기 근대소설의 발흥과 천도교 매체의 역할」, 『대동문화연구』 7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해성』, 『제일선』 등이 발간되었던 1930년대는 식민지 조선의 매체 지형이 격변했던 때였으며 문예잡지가 양적으로 확산되던 때였다. 1929년부터 『삼천리』가 발행되기 시작했고, <동아일보>에서는 종합지 『신동아』를 발행하기도 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1931년 11월 창간된 <동아일보사>의 종합지 『신동아』는 “신문사의 거대 자본”을 앞세워 잡지시장의 재편 및 경쟁을 촉발했다. 개벽사의 <해성> 및 <제일선> 발간 등도 이러한 재편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개벽사는 그 재편의 과정에서 1935년 잡지시장에서 퇴장하기에 이른다.⁷⁾

흥미롭게도 개벽사가 잡지시장에서 퇴장한 1935년 전후는 <조선중앙일보사>와 <조선일보사>가 각각 『중앙』과 『조광』을 창간하며 본격적으로 잡지 시장에 뛰어든 때이기도 하다.⁸⁾ 특히 조선일보사가 발간한 『조광』은 1935년 11월 창간되었으며 이후 1944년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되었고 대중적 종합지로서의 면모를 강하게 드러냈다.⁹⁾ 1930년대 개벽사는 이러한 매체 지형 변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 했다. 새로운 매체 『해성』과 『제일선』을 발행한 것, 1934년에는 『개벽』지를 속간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¹⁰⁾ 또한 개벽사가 직면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매체 지형 변화는

7) 이상의 내용은 유석환, 「1930년대 잡지시장의 변동과 잡지 『비판』의 대응」, 『사이』 6권, 국제한국문화학회, 2009, 242~243쪽.

8) <조선일보사>보다 조금 더 빠르게 잡지 시장에 뛰어든 것은 <조선중앙일보사>였다. 1933년 제호를 <조선중앙일보>로 바꾼 후 <조선중앙일보사>는 1933년 11월 종합 월간지 『중앙』을 창간했다. 『중앙』, 중앙일보사, 1933.4, 71쪽.

9) 『조광』과 관련된 최근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최수일, 「잡지 『조광』의 목차, 독법, 세계관」,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2014.
김은정, 「근대적 포탈 사이트(Portal Site)의 탄생-잡지 『조광』을 중심으로」, 『세계문화비교연구』 51, 2015.

최수일 연구에 따르면 『조광』의 경우 『해성』, 『제일선』과 같은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와는 달리,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9월호 이전에는 권두언이나 시사적 논설들을 배치하지 않았다. (최수일, 앞의 글 113~116쪽) 반면 『조광』은 창간호부터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발간되고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다른 잡지와 차별을 꾀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정혜영, 「1930년대 종합대중잡지와 ‘대중적 공유성’의 의미: 잡지 『조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142쪽.

10) 『해성』, 『제일선』, 『개벽』 이외에도 1930년대 개벽사는 『신경제』를 새로 발행했다. 그러나 『신경제』는 문예 담론과 직접적으로 관련 맺고 있지는 않

식민지 조선의 여러 작가들이 대면했던 문학적 환경이기도 했다. 매체 지형의 변화, 그리고 그에 대응한 개벽사의 움직임 역시 개별 작가의 창작 활동, 더 나아가 조선문단의 방향성 자체를 일정 부분 규정하는 요소였던 것이다.¹¹⁾

이 연구에서는 『혜성』, 『제일선』 및 속간된 『개벽』을 대상으로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에 나타난 문예 담론을 분석하려고 한다. 그러한 분석을 통해 개벽사 발간 잡지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문화 및 문학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재편하려 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학 작품에 한정하여 『혜성』 및 『제일선』을 분석하는 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들 잡지에 나타난 전반적인 문예 및 문화 관련 담론을 살펴본 후 그 담론들이 잡지의 문예 지면 배치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러한 담론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고찰하려고 한다.

다는 점에서 이 글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외에도 개벽사는 1920년대부터 『별건곤』, 『어린이』를 계속 발행했고 1930년에는 『신여성』을 속간했지만 이들 잡지는 기존 연구에서 심도 있게 분석되었다는 점, 1930년대 개벽사의 새로운 모색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점 때문에 역시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별건곤』 및 『신여성』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도경, 「식민지 검열과 대중잡지 『별건곤』의 불온성」, 『어문학』 130, 한국어문학회, 2015. 김복순, 앞의 글. 박숙자, 「1920년대 사생활의 공론화와 젠더화: 『별건곤』에 나타난 비밀코드와 여성의 기회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7, 한국근대문학회, 2006. 김경연, 「근대문학의 제도화와 여성의 읽고 쓰기: 『신여성』을 중심으로」, 『코기토』 7,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9. 김수진, 「신여성 담론 생산의 식민지적 구조와 <신여성>」, 『경제와사회』 69, 비판사회학회, 2006.

- 11) 예를 들어, 김유정과 같은 작가는 1930년대 초반 개벽사가 새로 발간한 『제일선』들에 소설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작품 활동은 1935년 <조선일보사>와 <조선중앙일보사>의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부터 전개한다. (전상국, 『김유정-시대를 초월한 문학성』,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25쪽.) 특히 김유정은 <조선일보사>가 발간한 잡지 『조광』에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하며 조선문단의 중심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 김유정을 비롯한 1930년대 작가들의 작품 활동은 <조선일보> 등으로 대표되는 신문사, 1920년대부터 활동을 지속했던 ‘개벽사’ 등 여러 매체들과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졌다.

2. 『해성』의 문예담론 기획 양상: 급변하는 정세 인식과 조선 사회·문화의 전망 모색

(1) 조선의 5대 신전선(新戰線) 구축과 조선문단의 전망

개벽사가 1930년대 『해성』이라는 매체를 새로 발간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해성』 1권 1호(1931.3)의 권두언에는 이와 관련해 세 가지 부분이 부각되어 나타난다. 첫 번째는 “전세계의 인류”가 “큰 모순을 품은 채 신생으로의 전화를 위한 고민”에서 해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조선사람, 그 중에서도 조선의 농민 및 노동자의 빈곤이 극한에 달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로 권두언은 조선사회의 후진성을 지적하며 “선각자의 의식적 노력”, “선각적 인텔리겐차의 임무”를 강조하고 있다. 세계정세의 급변과 조선사회의 위기를 지적하며 이에 대처하는 선각적 인텔리겐차의 역할을 강조한 권두언의 목소리¹²⁾는 『해성』 창간호에 실린 <민족적 대협동기관 필요의 유무와 그 가능성 여하>라는 기획과 <세계의 고민상>이라는 기획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 중 <민족적 대협동기관 필요의 유무와 그 가능성 여하>에는 ‘신간회 해소’를 즈음하여 『해성』이 강조한 ‘선각적 인텔리겐차’들이 ‘민족적 대협동기관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 계열의 지식인 박희도, 민족주의 계열의 송진우, 사회주의 계열의 김경재 등 다양한 지식인들은 ‘민족적 대협동기관’의 원론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대부분은 ‘신간회’ 운동 자체가 성공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이를 다시 논하는 것이 시기상조임을 지적한다. 물론 한용운처럼 신간회 해소에 대해 비판한 입장을 펼친 논자도 있었지만, 신간회보다 더 광범위한 협동기관의 필요성(이량), 노동자와 농민을 좀더 대표하는 협동기관(박야민)을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운동의 토대부터 재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해성』은 창간호부터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 조선사회 및 조선의 대중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색은 당대의 조선

12) 「권두언」, 『해성』 1호, 개벽사, 193, 1쪽.

사람이 프롤레타리아화 되고 있다는 정세인식, 그리고 그러한 정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한 작업과 연결된다. 『혜성』의 창간호부터 부각된 위기의식은 1권 4호의 특집 <신간회해소와 조선운동의 금후전망>의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이 특집에서도, 각기 다른 논자들이 ‘신형태의 협동전선’(김원호), ‘민중운동의 확대강화’(정운영), ‘민족적 새단결’(이종린), “전민족의 공동전선”(신후우), ‘실천적 대중운동’(김약천)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운동의 방향성을 고민한 시사 및 사회 문제 관련 기사가 많이 실렸던 반면, 상대적으로 『혜성』은 문예면에 큰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고 이는 나중에 『혜성』이 『제일선』으로 바뀐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혜성』은 창간호 목차에 별도의 ‘문예’ 코너를 설정하고는 있지만, ‘삼월의 노래’라는 표제 아래 이광수, 김억, 로아의 세 편의 시, ‘삼월과 인생’이라는 표제 아래 6편의 수필 등 계절 관련 글을 배치하는 데 주력한다. 이외에는, 채만식의 촌극 「시님과 새장사」, 김동인의 소설 「추억의 더듬길」만이 실려 있다.¹³⁾ ‘문예’ 지면에 수록된 작품도 소략했고, 그 지면을 구성하는 일관성이 부재했으며 ‘비평’을 통해 당대의 문학적 질서에 개입하려는 의지 또한 표출하고 있지 않다.

본격적인 문예비평이 실리게 된 것은 백철이 개혁사에 입사한 『혜성』 1권 9호(1931.12)부터였다. 백철은 자신이 쓴 「문예시평」에서 『신동아』, 『비판』, 『혜성』의 11월호에 실린 소설들을 간략하게 비평하고 있지만, 조선문단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충분히 표출되지 않았던 백철의 관점은 2권 1호(1932.1)에 실린 「조선문단의 신전망」에서 구체화되고 있으며 그 관점은 같은 호 『혜성』에 함께 실렸던 여타의 사회 관련 글들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조선문단의 신전망」은 1932년 『혜성』 신년호가 기획한 <조선5대신전선>이라는 특집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특집에는 「조선농민운동진흥책」(마명), 「조선언론계진흥책」(주요한), 「조선교육계진흥책」(최진순),

13) 1권 2호(1931.4)에서도 이태준의 소설 「결혼의 악마성」, 김동인의 「추억의 더듬길」만이, 1권 3호(1931.5)에서는 김영팔, 채만식, 남우훈 등의 희곡 네 편만이 수록되었다.

「조선문단의 신전망」(백세철), 「조선체육계진흥책」(이길용) 등 다섯 편의 글이 실려 있다. 편집후기에 해당하는 「혜성여적」에는 “조선의 5대진흥책은 조선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꼭 읽어야” 함을 당부한다.¹⁴⁾ 이러한 말 속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신간회 해소 이후 『혜성』이 구축하려고 한 새로운 전선은 사실상 조선사회를 진흥하는 대책의 수립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 특집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배치된 「조선농민운동진흥책」과 「조선언론진흥책」은 신간회 해소 『혜성』이 구축하려고 한 새로운 전선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노동운동가였던 마명 정우홍은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농촌은 필연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지만 식민지의 농촌은 영주국보다 더 몰락과정이 빠르다는 점, 공황은 이 몰락을 가속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우홍은 농촌의 몰락이 이미 예견된 상황 속에서 농민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¹⁵⁾ 정우홍은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모순과 조선사회의 특수성을 동시에 인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모색하려 한 것이다. 유사한 특성은 주요한이 쓴 「조선언론진흥책」에도 나타난다. 주요한은 시민적 자유 자체를 사법적으로 제한한 전세제적 차원, 시민적 자유가 발달한 일본에서의 행정처분,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특수법인 허가 및 원고점열제도를 동시에 인식하며 조선에서 언론 자유를 논하고 있다.¹⁶⁾

14) 「彗星餘滴」, 『혜성』 2권 1호, 1932, 173쪽.

15) 이상의 내용은 마명, 「조선농촌의 진흥책」, 『혜성』 2권 1호, 1~11쪽. 이 글에서 정우홍은 농민운동의 대외운동적 측면, 즉 “지주계급이나 농촌금융업자를 상대로 하는 순수한 계급투쟁”의 측면과 대내투쟁의 측면, “농민 자신이 지니고 있는 봉건적 제요소에 대한 자기청산적” 투쟁을 구분하고 있다. 정우홍이 보기에 당대는 농민운동의 대외운동적 측면이 침체를 겪은 반면, 문맹퇴치운동과 모범촌운동 및 소비조합운동과 같은 대내운동은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정우홍은 이러한 자연생장적 대내운동을 목적의식적인 대외운동과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정우홍과 관련된 연구는 이은지, 「마명 정우홍 연구를 위한 시론 1930년대 농민운동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2, 민족문화사연구소, 2016 참조.

16) 이상의 내용은 주요한, 「조선언론계진흥책」, 앞의 책, 11~14쪽. 주요한은 조선의 언론 자유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식민지적 언론제한과 시민적 제한”까지 모두 철폐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 정치투쟁의 계획

백철의 본명 백세철로 발표된 「조선문단의 신전망」 역시 앞의 글들과 유사한 문제를 아래 놓여 있다. 이 글은 조선사회 및 조선문단이 분화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대표하고 있지만, 조선의 특수 현상 또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백철은 그 특수현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글의 문맥상 식민지적 특성을 암시하고 있음이 유추된다. 그렇기에 그는 조선의 기성문단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르주아 문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조선의 특수조건을 고려할 때 기성문단은 ‘민족주의 문학’이라고 지칭되어야 하며 이때의 ‘민족주의 문학’은 ‘다수 민중’과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백철은 조선문단의 특수존재로 ‘해외문학파’를 들며, 이를 조선사회의 부동하는 인텔리 계층과 연결시킨다. 반면 백철은 조선문단의 중요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은 현재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백철이 보기에 이는 출판과 집회 등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조선의 특수한 조건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하지만,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이 일반 대중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기도 했다.¹⁷⁾

백철은 ‘민족주의 문학’, ‘해외문학파’,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이 향후 조선문단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에 참여했던 비평가들이 일반적으로 ‘민족주의 문학’ 혹은 기성문단이 몰락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백철은 현단계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이 ‘민족주의 문학’ 및 ‘해외문학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백철은 현 단계의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이 지니는 한계를 부각시킨 반면, 민족주의 문학과 해외문학파가 조선에서 지니는 의의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 이는 조선 농촌에 내재한 자본주의적 모순과 식민지적 모순을 동시에 응시했던 정우홍의 논의, 식민지적 언론 제한과 시민적 언론 제한의 동시 철폐를 강조했던 주요한의 논의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1932년 『해성』 신년호가 기획한 <조선5대신전선>에 참여했던 필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문화가 드러내는 일반적 모순과 조선 사회·문화의 특수한 모순을 동시에 인식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17) 백세철, 「조선문단의 신전망」, 앞의 책, 18~21쪽.

전선을 구축하려 했던 것이다.

(2) 세계 정세의 변화 조망과 세계문단의 신경향 소개

앞의 절에서 언급했듯 『해성』은 창간호 권두언에서부터 조선사회의 위기 못지않게 세계정세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한 세계정세의 변화 중 『해성』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세계공황이다. 『해성』은 <세계의 고민상>이라는 주제의 특집에서 세계공황을 세계열강의 자본주의가 봉착한 만성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¹⁸⁾ 세계정세의 변화를 조망하는 『해성』의 기획은 만주사변이 발발한 다음 해인 1932년부터 더 구체화된다. 『해성』은 2권 2호(1932.2) 권두언 「세계는 動한다」에서 중일문제를 중심으로 국제관계가 경색되고 있으며 ‘정치의 파시스트화’가 세계 각국에 유행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인도의 반영항쟁, 독일의 배상금 문제, 중국 정부의 통일문제 등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며 『해성』의 권두언은 “세계는 움죽인다 장차엇지되랴노”라는 말로 마무리된다.¹⁹⁾ 이러한 정세 인식은 같은 호의 특집기획 <세계열강국세(世界列強國勢) 조사(調査)>로 이어졌다. 편집후기인 「해성 여적(餘滴)」에서는 1932년 2월은 “군국주의 열강들이 소위 제4차의 군축회의를 여는 달”이기에, 그 의미를 검토하고 열강의 현세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계열강국세(世界列強國勢) 조사(調査)>를 기획했다고 말한다.²⁰⁾

『해성』 2권 2호의 총목차를 살펴보면, 이 기획은 「5개년 계획과 로서아」(백세철), 「위기에 직면한 영제국」(윤형식), 「전채(戰債)에 시달리는 독일」(이웅진), 「미국과 군축(軍縮)회의」(형걸), 「불국의 현국세」(박효덕), 「독재 천하의 이태리」(김형준), 「경제공황과 일본」(낙경), 「수난기의 중국」(어구선)으로 기획되었지만, 실제 본문에는 「5개년 계획과 로서아」, 「경제공황과

18) 『해성』 1호가 주목하고 있는 세계는 서구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세계의 고민상>은 중국과 인도의 향후 행보에도 초점을 맞추며 제국 열강이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인다. 특집 <세계의 고민상>에 실린 「열강국동정책과 중국의 금후전망」은 그 대표적 글이다.

19) 「세계는 動한다」, 『해성』 2권 2호, 1932, 1쪽.

20) 「해성여적」, 앞의 책, 140쪽.

일본」은 실리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세계열강국세(世界列強國勢) 조사(調査)>라는 특집이 같은 호 문예면에 배치된 또다른 기획 <세계문학의 신경향>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문학의 신경향>에는 「신흥의 소비에트문학」(백철), 「독일문학의 신경향」(김진섭), 「불란서문학의 현 동태」(이헌구), 「아메리카문학 신경향」(黎曉), 「일본문학 최근상(最近狀)」(김용제) 등이 실려 있다.

2권 2호에 자리한 <세계열강국세(世界列強國勢) 조사(調査)>와 <세계문학의 신경향>, 이 두 기획은 앞머리에 모두 백철의 글이 배치되었고 그 글들이 소비에트의 현 상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 그 외의 다른 글들 대부분은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열강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주목할 점은 1931년 12월부터 『해성』의 편집에 참여한 백철이 두 기획 모두의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목차 상에서는 본명 백세철로 발표하기로 기획되었던 「5개년 계획과 러시아」는 <세계열강국세(世界列強國勢) 조사(調査)> 기획에 실려 있지 않지만, 그 대신 문예면 기획 <세계문학의 신경향>에 실린 백철 글의 제목은 목차상에 있던 「신흥의 소비에트 문학」이 아니라, 「오개년 계획의 달성과 소비에트문학」로 바뀌어 있다. 백철은 경제공황 속에서 위기에 신음하는 자본주의 열강들과 오개년 산업 확장 계획을 달성한 소비에트 러시아를 대립시키며 논의를 시작한다. 문예면에 실려 있기는 하지만 백철의 글 역시 서두에서는 소비에트의 정세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백철에 따르면, 소비에트는 오개년 생산계획을 통해 “경제의 공업화와 농업의 사회주의화”를 동시에 이루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문화 영역에도 반영되어 있다. 소비에트에서 농민문학은 점차로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²¹⁾ 경제공황으로 인해 계급분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은 <세계문학의 신경향>에 실린 다른 글들, 「불란서 문단의

21) 이상의 내용은 백철, 「오개년계획의 달성과 소비에트문학」, 앞의 책, 120~125쪽. 백철은 이러한 변화가 나프 작가들에게도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분석한다. 「오개년 계획의 달성과 소비에트문학」은 백철이 저자로 되어 있지만, ‘나프’에만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철이 참고하고 있는 일본 텍스트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신전망」, 「아메리카 문단의 신경향」, 「일본 문단의 신경향」에도 모두 부각되고 있는 지점이었다.

이는 특집기획 <세계열강국세(世界列強國勢) 조사(調査)>에 실린 글들의 문제의식과도 맞물려 있다. 「위기에 직면한 영제국의 현세」를 쓴 윤행식은 금본위제 폐지 이후 영제국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동당 내 각 당시 도입한 실업보험 제도 역시 공황기의 자본주의적 제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되지 못함을 지적한다. 「전채(戰債)에 시달리는 독일」과 「독재천하의 이태리」에서는 이러한 영제국의 위기가 전쟁 부채 배상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시즘 독재 체제로 나아간 이탈리아의 모습과도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²²⁾

열강들이 처해 있는 위기는 세계 각국의 문학 운동을 변화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다. 문예면 기획 <세계문학운동의 신경향>에 실린 이현구의 「불란서 문단의 신전망」은 세계 각국의 문학운동이 경제공황이 야기한 파시즘적 흐름에 대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현구에 따르면, 공황이 야기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는 세기말의 분위기를 다시 유행하게 했지만 프랑스 문학운동은 새로운 문화건설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려 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에트의 소개 및 연구 작업과도 맞물려 있다. 또한 『서부전선이상없다』를 쓴 레마르크로 상징되는 프랑스 문단의 반전적(反戰的) 경향 역시 닥쳐올 “국제적 세계대전에 대한 철저한 반항”심을 드러내고 있다.²³⁾

세계정세, 그리고 이와 맞물린 세계문단의 신경향에 대한 『혜성』의 관심은 『혜성』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마지막호(2권 4호, 1932.4)에서 중국문제로 집중된다. 권두언인 「동양평화의 암(癌)」에서부터 『혜성』은 동양의 맹주로 부상한 일본과 쇠퇴하는 중국으로 인해 동양평화가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근 일어난 ‘만주사건’, ‘상해사건’, 그리고 ‘신민주국의 건설’ 등이 동양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질문한다. 『혜성』은 일본과 중국 사이의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때 동양의 평화가 올 것이라고 대답²⁴⁾하고 있지만, <중국시국문제특집>에 배치된 글들은 중국의 장래가 위기에

22) 이상의 내용은 「세계열강국세조사」, 앞의 책, 2~22쪽.

23) 이현구, 「불란서문단의 신전망」, 앞의 책, 129~131쪽.

24) 「동양평화의 암」, 『혜성』 2권 4호, 1932, 1쪽.

처해있음을 강조한다.

이 특집에 실린 「결정기에 직면한 중국의 대세」, 「장개석의 재기와 중국 정계의 장래」의 글은 분열되어 있는 중국의 모습을 부각시키며 중국의 장래를 전망한다.²⁵⁾ 「위기에 선 중국의 장래 전망」은 이러한 중국의 분열을 초래한 원인으로 무정부주의적이고 개인적인 중국의 국민성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비록 중국국민의 경제적 근면성을 높이 평가하고는 있지만 세계 정세가 초래한 중국 위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고찰하지 않은 채 이를 국민성의 문제로 환원시키려고 한 점은 『해성』의 <중국문제특집>이 지니는 결정적 한계였다고 볼 수 있다.²⁶⁾

특집기획에 함께 배치되어 있는 「최근 중국문학의 신경향」²⁷⁾ 역시 신문 학운동 이후 중국문학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만 있을 뿐 그러한 문학적 경향과 최근 중국의 사회·문화적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의 정세 뿐 아니라 문학을 분석할 때에 있어서도 『해성』의 시각은 서양을 분석할 때와는 달리 예리함을 잃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그 시기 매체들이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받고 있는 일련의 제약과 맞물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해성』은 중국 문제를 특집으로 다룬 다음 호에 대대적 검열을 당했고, 그 이후 제호를 바꾸어 간행된 『제일선』은 발간 초기에는 『해성』처럼 중국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지 않게 된다.

25) 「결정기에 직면한 중국의 대세」에서는 현재의 중국이 좌에 공산당, 우에 국가주의청년당, 중앙에 국민당으로 삼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장개석의 재기와 중국 정계의 장래」에서는 만주사변 이후 장개석의 지위가 몰락했지만 중국 정계의 장래를 통제할 사람은 장개석 이외에는 없다고 분석한다. 박춘광, 「결정기에 직면한 중국의 대세」, 앞의 책, 2~6쪽. 양춘, 「장개석의 재기와 중국정계의 장래」, 앞의 책, 6~9쪽.

26) 이성기, 「위기에 선 중국의 장래전망」, 앞의 책, 17~20쪽.

27) 華侃, 정래동 역, 「최근 중국문학의 경향」, 앞의 책, 22~32쪽.

3. 『제일선』의 문예담론 기획 양상: 문예지면의 비중 확대와 문화전선의 재구축

(1) 문예 지면의 확충과 신진 작가 등용

『해성』은 1932년 5월 『제일선』으로 이름을 바꿨다. 『제일선』 1호에서는 ‘해성’이라는 이름이 너무 막연한 반면, ‘제일선’은 “대중과 한가지로 제일선에 나서서 그 여론을 위하여 문화의 계몽과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특히 침체된 문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한다.²⁸⁾ 앞서 정리한 『해성』의 창간사와 비교했을 때 『제일선』의 창간사에는 농민이나 노동자와 같이 조선의 운동을 이끌 집합적 주체를 호명하는 어휘가 사라진 대신, ‘문화’와 ‘문예’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해성』 5월호의 원고 중 중요한 제목의 거의 대부분이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 데 있었다. 이를 보충할 원고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개벽사는 그 동안 모색했던 『해성』의 제호 및 편집체제 재편을 전격적으로 시도한 것이다. 『제일선』은 내용의 측면에서 『해성』보다 수준을 낮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난삽한 문장 등을 피”하고 “대중에게 평이함”을 주려고 했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있다.²⁹⁾ 이후 발간된 『제일선』을 보면 『해성』 때에 다루었던 시사적인 내용 이외에도 <문제인물>, <전조선기인괴인집>(2권 6호), <대특집 입심쟁이대좌담회>(2권 7호) 등 다양한 기사를 배치하고 있다.³⁰⁾

28) 이상의 내용은 「권두언」, 『제일선』 2권 5호, 1932, 5쪽.

29) 「권두언」, 앞의 책, 5쪽. 이러한 점을 볼 때 “『제일선』이 4·6배판(188×257)으로 간행”된 것에 주목하여 “개벽사가 『신동아』나 『삼천리』를 의식”하며 『제일선』의 발행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유석환의 논의는 설득력을 지닌다. 유석환, 앞의 글, 2009, 243쪽.

30) 『제일선』 2권 9호에 실린 「제일선후기」에는 “그러나 시사 뿐이 아니다. 문예 취미 등에 있어서도 역, 단연 「제일선」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제일선』이 기사의 유형을 시사, 문예, 취미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제일선후기』, 『제일선』 2권 9호, 134쪽.) 이 논문에서는 ‘문예’와 ‘시사’ 관련 글들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취미’ 관련 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를 기약하려고 한다.

또한 『제일선』은 재판의 과정에서 ‘문예’에도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해성』에는 축소되었던 문예 지면이 확충된다. 그 확충은 크게 두 가지 양태로 드러났다. 첫 번째는 논쟁 및 월평류 비평이 지속적으로 『제일선』에 실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제일선』 발간과 함께 개벽사에 복귀한 채만식은 동반자 작가 문제와 관련된 논쟁을 전개했고, 이현구·김광섭·백철 등은 월평류 비평을 지속적으로 발표한다.

여러 신진작가를 의식적으로 등용한 것은 『제일선』 문예면 기획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다. 『제일선』은 1932년 7월호에서부터 <신인작가소개특집>을 기획하여 여러 신진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³¹⁾ 『제일선』의 1932년 8월호 <편집후기>에는 “신인작가를 널리 세상에 소개하기 위하여 8월호를 「신인작가호」로 한 것”(앞의 글, 134쪽)을 큰 자랑거리라고 말하며 앞으로 도 신인을 소개하는 데 힘을 쓰겠다고 말한다.

이러한 『제일선』 문예면의 편집방향은 기성 문단에게 적지 않은 비판을 야기하였다. 1933년 2월호 『제일선』의 ‘편집후기’에는 “『제일선은 신진작가소개를 합네.....하고 너저분한 창작만 실린다.”는 기성문단의 지적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제일선』의 편집진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성문단에 대해 반론을 펴고 있다. “그러면 기성문단에 묻노니 못 출판물이 신인의 작품발전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문단의 후계자(後繼者)는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³²⁾ 이러한 문제제기는 곧 신진작가의 작품을 대거 소개했던 『제일선』의 기획에 조선문단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한 일관된 의도가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진작가소개특집에 작품을 발표했고, 개벽사 기자로도 활동했던 안희남의 「문단 시야비야론-신인이 본 기성문단」이 『제일선』 2권 9호에 발표된 점 또한 이와 연관된다. 이 글에서 안희남은 오늘날의 문단이 침체와 부진을 겪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한 부진을 낳게 만든 요인의 하나로 안희남은 “발표기관의 독점 길드화”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폐해의 사

31) 『제일선』의 <신인작가소개특집>에 소개된 작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치진, 「환영」; 안필승, 「처녀」; 정일수, 「눈병신이 아들」; 채도현, 「배금철학」; 장덕조, 「저희(低徊)」; 최고약, 「애원(哀願)」.

32) 이상의 내용은 「제일선후기」, 『제일선』 3권 2호, 1933, 132쪽.

례로 최독권을 들고 있다. 또한 안회남은 『삼천리』 등의 잡지에서 「문사좌담회」를 하고 있지만 그 잡지에 참여한 기성문인들이 소설을 제대로 읽지도 않은 채 좌담회에 들어오고 있음을 비판한다. 기성작가에게 “당신들은 어디로 가려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제일선』은 안회남의 글을 통해 기성문단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³³⁾

이후 『제일선』은 1933년 3월호에도 <양춘문예특집(陽春文藝特輯)>이라는 기획을 배치하여 문예면 비중을 확대한다. 이는 편집을 맡았던 이석훈과 김규택이 모두 병환에 시달렸기에 “개벽사 잡지의 특성”인 흥미로운 중간독물(中間讀物)을 배치하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제일선』의 편집후기는 중간독물을 배치하지 못한 대신 풍부한 문예작품을 수록한 것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³⁴⁾ <양춘문예특집>의 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설·희곡>

小說急造	김동인
개있는 風景	이종명
일흔없는 죽엄	남우훈
山入골나그네	김유정
비지 (小品)	편석춘
父子	강경애
背信者의 편지	조용만
원수탕(猿髓湯)	박로아
그들 형제(兄弟)	이석훈
담 노	박노홍

<평론>

조선문학을 구하라	백철
계급적 입장문제	안회남

33) 안회남, 「문단 시야비야론-신인이 본 기성문단」, 『제일선』 2권 9호, 1932, 93-99쪽.

34) 「제일선후기」, 『제일선』 3권 3호, 1933, 132쪽.

<시·시조>

- 수도(隧道)를 걷는 무리 백세철
- 인폴폴레-손 김화산
- 오늘밤 아버지는 퍼령 이불덮고 임화
- 안해에게 주는 글 로아
- 북해만리(北海萬里)의 노도(怒濤)여오라 · 이규원
- 대흥산성 이병기
- 어린 봄 김일섭

<향토수필>

- 애도(艾島)! 나의 애도(愛道) 이훈
- 흐르는 대동강(大同江) 주보
- 평양! 천하명승 최창규
- 문암동(門巖洞) 집자리 최영주

<양춘문예특집>에는 「어머니와 딸」 등을 『혜성』과 『제일선』에 연재하며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을 했던 강경애, 『제일선』의 편집일도 담당하면 이 매체에 여러 작품을 발표했던 안희남과 이석훈 등의 작품이 실려 있다. 당시에 신인이었던 김유정이 매체에 수록한 첫 번째 작품 「산골나그네」도 이 잡지에 실려 있다. 그러나 특집에는 이외에도 김동인, 이종명, 임화 등 기성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 또한 수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독자의 편지와 이에 대한 편집진의 답변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문: 귀지에서 신진작가를 많이 소개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실력 없는 작품을 나열하는 것은 불가하다. 왜 이종명, 이효석, 조용만, 유진오, 송영, 이무영씨의 작품을 실지 않느냐. 문예란을 더 확충시켜라.(광화문통 일 문학청년)

답: 충고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실력 없는 작품의 나열이라니 어떻게 하시는 말씀임닛가. 문예비평으로 좀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적은

작가들의 작품을 일부러 안신는 것은 아니오. 편집자의 불민한 탓도 있겠지마는 기타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압흐로는 이들 뿐만이 조선의 작가의 전부가 안이니 극히 넓은 범위에 의하여 비록 무명작가라도 작품만 좋으면 다 실겠습니다.(『제일선』, 1933.3, 45쪽)

위의 질문과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제일선』에 소개된 작가들의 위상에 대해서는 독자들 또한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제일선』의 편집진은 이에 대해 더 넓은 범위의 작가들을 두루 소개하려고 한다는 원칙, 무명작가의 작품이라도 좋은 작품이면 수록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밝히고 있다. 1933년 3월호 『제일선』에 김동인, 이종명, 조용만 등 기성 작가들의 작품이 실리게 된 원인, 그리고 김유정과 같은 신인들의 작품이 그들의 작품과 함께 실리게 된 원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³⁵⁾ 신진 작가를 등용하려고 한 기획의도가 독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자 『제일선』은 그 기획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문예면에 수록하며 독자들의 요구 또한 부분적으로 수용하려 한 것이다.

(2) 문화전선의 SOS와 조선문학의 위기

1933년 신년호부터 『제일선』에는 위기를 부각시키는 담론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1933년 신년호의 권두언에서는 독일의 배상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만주문제 등 국제정세에 나타난 침예한 대립을 강조한다. 또한 조선의 객관적 정세 역시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좋지 않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1933년 2월호에는 <문화전선의 SOS>라는 기획을 배치하며 이러한 위기 중 조선의 문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같은 호의 <제일선 후기>에서도

35) 김유정이 『제일선』에 자신의 소설 작품을 발표하게 된 이유로는 개벽사의 잡지 발행을 총괄했던 차상찬과의 인연, 『제일선』의 편집 실무를 담당했던 안희남과의 친분이 주로 거론되어 왔다. (유인순은 차상찬씨의 아들 차용렬이 전해준 일화를 담은 『강원도민일보』의 기사(2012.3.28.)를 인용하며 김유정과 차상찬과의 인연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유인순, 「김유정 문학에 대한 인문지리적 접근」, 『김유정과외의 향연』, 2015, 118쪽) 그러나 『제일선』이 별다른 문학 활동 경력이 없는 김유정에게 지면을 부여해 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별다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현조선의 경제상태, 그리고 경제 상태에 영향을 받은 조선문화가 위기에 직면했음을 부각시킨다.

<문화전선의 SOS>에 배치된 글은 모두 7편으로 이 글들은 각각 언론과 교육(「추락된 민간신문」, 「일면일교제의 환멸」), 지식계층(「문화예비군의 고민」, 「기रो에 선 신여성」, 「인테리의 절망」), 문단(「기성문단의 몰락」, 「푸로문단의 위기」)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앞에서 분석한 1932년 『해성』 신년호의 <조선5대신전선>에 실린 「조선농민운동진흥책」, 「조선언론계진흥책」, 「조선교육계진흥책」, 「조선문단의 신전망」, 「조선체육계진흥책」과 비교해보면, ‘농민’과 ‘체육’ 부분을 1933년의 <문화전선의 SOS>에서는 논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논의와 취미로 인식될 수 있는 영역을 배제한 대신, <문화전선의 SOS>에서는 지식계층과 문단의 문제를 핵심적 논의의 틀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비군의 고투」에서는 중등 및 그 이상 학교의 출신자를 문화예비군으로 규정하며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취업난과 결혼 문제, 그리고 사상적 변민을 부각시킨다. 이 글에 따르면 문화예비군은 세계적 경제공황 등의 이유로 인해 “실업노동자의 무리”나 다름없게 되고 ‘조혼’이라는 시대적 악습 속에서 “자유 연애 및 결혼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게 된다. 그 결과 청년들이 동요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 이 글은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지닌 청년”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린다. 이러한 분석은 「기रो에 선 신여성」에서 신여성의 변민이 결혼문제와 취업문제에 있음을 지적한 것과 연결되고 있다. 『제일선』은 <문화전선의 SOS>를 통해 당대의 인텔리계층이 맑스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서 변민하고 있다고 분석하는데, 이러한 분석은 당대 문단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되고 있다.³⁶⁾

<문화전선의 SOS>에 실린 「기성문단의 몰락」과 「푸로문단의 위기」는 모두 현 시기의 조선문단이 처한 문제들을 비판하고 있다. 「기성문단의 몰락」은 부르주아 문학이 몰락하고 있으며 이는 “민족적 부르주아들의 이데올로기”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한다. 이 글은 조선의 토착자본이 발전을 이루지 못했기에 조선에서 민족적 부르주아는 발전

36) 이상의 내용은 박영춘, 「문화예비군의 고투」, 『제일선』 3권 2호, 1933, 11~13쪽 및 獨將山人, 「기로에 선 신여성」, 앞의 책, 13~16쪽.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조선 부르주아 문학에서 신인이 나오지 않는 것, 발전하지 못한 채 후퇴를 겪고 있는 것 역시 조선 계급발전의 기형성과 연동된다고 결론내린다.³⁷⁾

「기성문단의 몰락」의 시각은 이현구가 쓴 「푸로문단의 위기」와 맞물려 있다. 조선 부르주아 문학의 몰락은 프로문학이 지니는 의의를 부각시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현구는 조선의 프로문학 역시 조선의 객관적 정세에서 귀결된 문학적 운동이 아니라 국제 프로문단의 새로운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유입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한다. 그 원인을 조선 사회가 지니고 있는 내재적 모순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시각³⁸⁾은 앞에서 분석한 「기성문단의 몰락」, 더 나아가 <문화전선의 SOS> 기획의 전반적 문제들과도 맞닿아 있다. <문화전선의 SOS>에 실린 글들은 교육, 인텔리 계층, 여성, 문단 등 각기 다른 영역을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했지만, 그 기본적인 시각은 조선 사회의 문화적 후진성을 지적하고 그러한 후진성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문화전선의 SOS>가 실린 직후인 1933년 2월호에 실린 백철의 「조선의 문학을 구하라」는 비록 문학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제일선』이 모색했던 지향을 상당 부분 드러내주고 있다. 백철은 조선문학의 “역사적 배경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강조하며 이를 조선 부르주아 문학이 완성되지 못한 원인으로 규정한다. 여기에서 백철이 강조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은 곧 조선 부르주아 계급의 미성숙함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곧 조선의 봉건사회가 내부적 도약을 통해 근대사회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곧 조선사회 및 조선문학의 후진성을 지적하는 논의로 나아갔는데, 이때의 후진성은 조선의 부르주아 문학 및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모두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백철이 보기에 조선의 부르주아 문학은 자연주의 문학 및 낭만주의 문학의 개화도 이루지 못했으며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문학 역시 낮은 수준의 작품만을 생산하고 있다. 조선의 문학을 규정하고 있는 그 시각은 앞에서도 분석한 것처럼 <문화전선의 SOS>

37) 이상의 내용은 황하청, 「기성문단의 몰락」, 앞의 책, 16~18쪽.

38) 이상의 내용은 이현구, 「푸로문단의 위기」, 앞의 책, 18~21쪽.

기획에 실린 글들에도 일정 부분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백철의 글은 조선문학의 후진성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구체화시켜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글들의 문제의식보다는 한걸음 나아가 있다. 백철은 조선문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카프가 조금 더 대중적인 조직으로 나아가야 하며 창작사업에 비해 비교적 용이한 비평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백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후자로, 백철은 젊은 프롤레타리아 비평가들이 일반적 문제를 추상적으로 논의하는 데 벗어나 구체적 작품을 통한 작품 비평을 전개해야 하며 이러한 비평적 행동을 통해 조선문학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³⁹⁾

『해성』에 실린 문예 관련 글들과 비교해보면 『제일선』에 실린 백철의 글들은 조선문학의 전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 비판은 곧 조선문학의 후진성을 한층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신진작가의 등용을 통해 조선문학 전반을 재편하려고 했던 『제일선』 문예면의 기획의도와 조응하고 있다. 조선문학의 위기 및 후진성을 부각시킬수록 신진작가를 등용하여 그 위기를 극복할 필요성 또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절에서도 분석했듯이 신진 작가를 등용하려고 한 『제일선』의 기획 의도는 독자들의 비판에 부딪히게 되었고, 『제일선』은 그 의도를 온전히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분석했듯 1930년대 개벽사는 “검열로 인한 곤란, 심각해져 가는 경제공황으로 인한 독자층의 위축과 그에 따른 각 잡지사의 독자 획득 위한 경쟁의 노골화, 환율 하락을 구실로 한 인쇄업자들의 인쇄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했다.⁴⁰⁾ 신진작가를 등용하여 조선문단을 재편하려고 한 『제일선』의 문제의식은 그러한 경영 상황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없었고, 그 결과 『제일선』은 1933년 3월 이후 발간되지 못했다. 『제일선』의 문제의식은 1934년 속간된 『개벽』에서 다시 표출되었지만, 그 의도의 상당 부분은 변형되어 있었다.

39) 이상의 내용은 백철, 「조선의 문학을 구하라-젊은 맑스주의평가의 임무」, 『제일선』 3권 3호, 1933, 48~53쪽.

40) 정용서, 앞의 글, 246쪽에서 재인용. 「제일선후기」, 『제일선』 2권 7호, 1932, 132쪽.

4. 속간된 『개벽』의 문예 담론 기획 양상: 민족적 신문화의 건설과 조선 신문 비판

(1) 조선문화의 재인식과 박영희의 귀환

개벽사는 1934년 11월, 창사 14주년을 맞이하여 『개벽』 속간호를 내놓는다. 『개벽』 신간 1호의 「편집여묵(編輯余墨)」에는 “개벽사 본래의 순교적 희생이 상실되고 개벽사의 유지”에 급급했던 점을 비판하기 위해 『개벽』을 속간하기로 했음이 드러나 있다. 『개벽』이 폐간된 이후 개벽사는 『별건곤』, 『어린이』, 『학생』, 『신여성』을 발간했고, 1930년대에는 『혜성』, 『제일선』, 『신경제』 등을 출간했음에도 이 잡지만으로는 1920년대 『개벽』이 담당했던 문화적 역할을 온전히 대체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개벽』 신간의 발간은 편집인들에게 “조선에 가장 충실한” 문화적 대잡지로서의 일보를 다시 내딛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개벽』 신간 1호의 발행은 편집인들에게 아직 준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온전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편집인들은 『개벽』 신간 1호의 문예면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⁴¹⁾

더욱 백여혈의 선하는 문예창작단은 잡지계공전의 대응단이며 이광수 염상섭, 김동인, 김기진, 주요한, 김억, 유진오, 이태준, 이기영, 김동환, 김기림, 백신애 제씨의 역작을 함께 실게 된 것은 문단유사이래의 위관이요 거기에 박영희, 이현구, 백철 삼씨의 문예평론까지 함께 엮게 된 것은 다시 더 형언할 수 없는 성관으로 맞는 바이다. 압호로 더욱 본지의 문예창작단의 확충을 꾀하여 문단발전의 획기적 일선을 굽게 굶고져 생각하는 바이다.⁴²⁾

『개벽』 신간 1호는 ‘문예창작단’의 확충을 시도하며 『혜성』, 『제일선』 등 1930년대에 새롭게 발행된 여타 잡지와 변별점을 마련하려 했다. 이는

41) 「편집여묵」, 『개벽』 신간 1호, 1934, 98-99쪽

42) 앞의 글 99쪽.

기존의 조선문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던 작가들을 망라한 후 그들의 작품을 수록하려고 한 시도로 이어졌다. 앞서서도 분석했듯 『혜성』과 『제일선』은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여 기존의 조선문단을 혁신하려고 한 의도를 드러낸 반면, 신간 『개벽』은 이광수, 염상섭, 김동인, 김기진, 주요섭, 김억 등 1920년대 『개벽』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을 재등장시키며 1920년대 『개벽』이 지녔던 주도적 역할을 복원하려 한 것이다. 유진오, 이태준, 이기영, 김동환, 김기림, 백신애 등의 작가들을 포함시킨 것에서도 속간된 『개벽』이 문학관의 차이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조선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예창작란’ 확충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박영희, 이현구, 백철의 평론이 실렸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 중 백철과 이현구는 『혜성』과 『제일선』에도 빈번하게 평론을 발표했던 논자들이다. 반면 박영희의 경우는 KAPF에서 주되게 활동했던 1920년대 후반에는 개벽사와 거리를 두었지만, KAPF 운동과 멀어지게 된 1934년부터 복간된 『개벽』에 다시금 평론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신간 『개벽』 1호에 박영희가 평론을 발표하게 된 것은 일회적인 현상만은 아니었다. 신간 『개벽』 2호의 「편집여묵」에서는 박영희가 개벽사에 다시 입사하여 편집책임을 지게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⁴³⁾

개벽사에 입사한 이후 박영희가 발표한 글들의 배치 양상을 보면 박영희가 단순히 문예면 편집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신간 『개벽』 2호와 3호에는 박영희의 글이 각각 두 편씩 실린다. 2호에 「조선문화의 재인식」과 「작품에서 보는 『빨삭』예술관의 편린, 산 인간묘사문제에 관련하야」, 3호에 「조선지식계급의 고민과 기 방향」과 「“골키”의 문학적보고에 관련하야」가 그 글들이다. 이 중 앞의 두 편, 즉 「조선문화의 재인식」과 「조선지식계급의 고민과 기 방향」은 문예면이 아니라 권두 논설로 실렸다는 점이 주목해야 한다. 권두 논설은 1920년대부터 『개벽』의 전체적인 논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으며 『개벽』 신간 1호에서도 권두 논설을 작성한 사람은 개벽사의 핵심 인물 이돈화였다.⁴⁴⁾ 이후 2호와 3호에 박영희가

43) 「편집여묵」, 『개벽』 신간 2호, 1934, 92쪽.

44) 이돈화가 『개벽』 및 천도교에 미쳤던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는 허수, 『이돈화연

권두 논설을 작성했다는 것은 신간 『개벽』의 전반적인 논조를 책임질 사람으로 박영희가 부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에 앞의 두 편의 박영희 논설은 『개벽』 신간 1호에 발표된 이돈화의 「조선민족성의 신건설」과 함께 독해될 필요가 있다. 복간된 『개벽』의 권두언에 해당하는 「조선민족성의 신건설」에서 이돈화는 「이상적 민족성」을 강조하며 조선 민족이 처한 엄정한 현실을 개척하자고 제안한다. 여기에서 이돈화는 「이상적 민족성」을 「민족적 초인성과 민족적 초민족성」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니체의 초인론을 진화론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근간을 두고 있다. 니체 사상은 1920년대부터 『개벽』에 참여했던 천도교 사상가들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그 시기 이돈화는 니체 철학을 「개인의 자유권과 자유발전의 능력을 용인」하는 데에는 공로가 있지만, 「인류의 사회 전체를 상부상조」하는 측면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⁴⁵⁾ 그러나 「조선 민족성의 신건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1930년대 이돈화는 니체 철학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1930년대부터 천도교의 대표적 이론가로 활동했던 김형준 등의 니체 수용 작업과도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돈화 등과 천도교 청년당 활동을 함께 했던 김형준은 1930년대부터 니체 초인사상의 역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했다.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고 역사의 새로운 창조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니체 사상을 개벽적 역사관과 연결시키려 한 것이다.⁴⁶⁾

이돈화는 재해석된 니체 사상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이는 니체의 초인을 「현재의 인을 초월하여 신인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한 후 이를 「민족적 초인성」이라고 규정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⁷⁾ 니체

구』, 역사비평사, 2011.

45) 김정현, 「니체사상의 한국적 수용-1920년대를 중심으로」, 『니체연구』 12집, 한국니체학회, 2007, 58쪽.

46) 김정현, 「1930년대 니체사상의 한국적 수용-김형준의 니체 해석을 중심으로」, 『니체연구』 14집, 한국니체학회, 2008, 250쪽 및 255-256쪽.

47) 이러한 이돈화의 사상적 변화는 1930년대 이돈화가 『신인철학』에서 모색했던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김용휘에 따르면 1930년대 이돈화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명철학을 정립한 후 “『신인간』의 새로운 주체 형성”을 통해 문명개벽을 모색했다. 김용휘,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서양철학 수용」, 『범한철학』 77, 범한철학회, 2015, 67쪽 및 76쪽. 이돈화 철학에 나타난 진화론적 요소를 규정한 선

사상을 민족적으로 전유한 이돈화는 “과거의 민족성을 초월하여 보다 자립성이 있고 보다 단결성이 있는 민족성”, 즉 “위대한 새 민족성”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려 한 것이다. 이는 사대성, 당파성 등으로 대표되는 부정적 민족성에서 벗어나 ‘민족적 신문화’를 건설하는 작업으로 의미화 되었으며, 그 작업은 복간된 『개벽』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⁴⁸⁾

KAPF를 탈퇴하여 『개벽』으로 복귀한 박영희는 바로 「조선문화의 재인식」과 「조선지식계급의 고민과 그 방향」을 발표했고, 이 글들은 이돈화의 글과 유사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개벽』으로 귀환한 박영희의 행보와 박영희 비평에서 ‘조선문화’가 재인식되기 시작한 과정은 서로 맞물려 있었다. 박영희는 『개벽』 신간 2호와 3호에 「조선문화의 재인식」, 「조선지식계급의 고민」을 발표했고, 그 글들에서 박영희는 조선의 청년들이 ‘조선적’이라는 말을 거부했음을 비판하며 최근의 조선학논의는 “계급적 고독에서 민족적 시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박영희는 ‘조선의 재인식’을 위해서는 과거 조선문화의 유산을 체계화하는 작업, 더 나아가 체계를 세우는 데 필요한 방법론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영희는 그 체계적 방법론을 크게 두 가지, 즉 “계급적 견지에서 조선을 이해하려는 것”과 “조선적 견지에서 계급을 해석하려는 것”으로 구분한다. 이 두 가지 관점이 각각 ‘보편적’ 성격과 ‘특수적’ 성격을 지닌다고 말한 후 박영희는 “조선적 견지에서 계급을 해석하려는 것”을 “광범한 실천의 복잡성을 체계 있게” 이해하려는 작업으로 긍정한 반면 계급적 견지에서 조선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원리의 단순성”을 드러낸 것으로 비판한다.

전향 선언 이후 박영희는 계급적 시각을 완전히 기각하지는 못했지만, ‘계급적 시각’만으로 조선을 재단하려는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조선적 견지에서 계급을 해석”하겠다고 말한 박영희의 주장에서는 특수적인 것에 주목하여 보편성을 새롭게 규정하겠다는 지향이 드러난다. 박영희는 ‘생활’이

구적 논의로는 허수, 앞의 책, 2011. 베르그송의 영향력을 부각시킨 논의로는 이철호, 「우주종교로서의 개벽사상: 이돈화와 김지하의 진화론(進化論) 수용 및 그 정신사적 계보」, 『한국학연구』 3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48) 이상 「조선민족성의 신건설」과 관련된 내용은 이돈화, 「조선민족성의 신건설」, 신간 『개벽』 1호, 1934, 2-6쪽.

라는 개념을 부각시키며 이러한 지향을 보여주려 했다.⁴⁹⁾ 조선의 고전문화 속에서 “생활의 유동”, “생활발전의 계단”을 찾아야 함을 강조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생활’이라는 개념은 1920년대 박영희와 김기진 등이 낭만주의적 ‘생명’ 담론을 유물론적으로 전유하기 위해 부각시켰던 용어였다.⁵⁰⁾ 박영희는 ‘계급’이라는 범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시금 ‘생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때의 ‘생활’은 1920년대와는 달리 ‘발전’이라는 말과 긴밀하게 결합되고 있다. 「조선문화의 재인식」에서 강조된 ‘생활’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장하고 발전해 온 ‘조선문화의 총체’로만 의미화 될 위험, 그리하여 당대 조선인들의 삶과 구체적 관련을 맺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곧 『개벽』 신간 3호에 나타난 박영희의 권두 논설 「조선 지식계급의 고민과 그 방향」에도 드러난다. 이 글은 “생산관계에서 동일한 생활 상태를 가진 일군”을 의미하는 말로 계급을 규정할 때 지식계급은 계급으로 볼 수 없지만, “정신상 학문을 연구하는 동일한 방법을 대표해서 사용한 말”로 규정할 때에는 ‘중등교육’을 받은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자 혹은 육체노동과는 다른 생활전선에 뛰어들려 하는 자로 지칭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에도 박영희는 ‘생활’을 생산관계 혹은 계급관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려 했으며 그 결과 조선 지식계급이 지니는 특수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박영희에 따르면, 조선의 지식계급은 ‘부르주아’를 대표하든, ‘프롤레타리아’를 대표하든 문화적 기본이 빈약하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지닌다. 한편으로 박영희는 그 원인을, “규칙적이고 계통적 발전” 없이 외부 사회에서 이론을 유입했던 지식계급의 태도, “대중생활의 세밀한 연구” 없이 무산대중의 선두에 서려 한 지식계급의 조급함에서 찾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한계가 조선문화 일반의 후진성에 기인한다고 박영희는 분석하였다. 박영희는 사회운동 선상에서 퇴각한 지식계급이 문화사업 및 계몽운동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이 역시 조선 문화적 환경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

49) 이상의 내용은 박영희, 「조선문화의 재인식」, 『개벽』 1권 2호, 1934, 290~293쪽.

50) 이에 대한 분석은 이철호, 「신경향파 비평의 낭만주의적 기원」, 『영혼의 계보』, 312쪽.

고 말한다. 대중의 교양수준 부족과 경제력 궁핍과 같은 한계만을 부각시켰기에 박영희가 역설한, 조선 문화를 변화시켜야 할 지식계급의 임무는 구체성을 상실하고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데 그친다.⁵¹⁾

이러한 박영희의 시각은 『개벽』 신간1호에서 이돈화가 강조했던 “한쪽으로 경제력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한쪽으로 민족적 신문화를 건설”하자고 했던 주장⁵²⁾과도 일정 부분 조응하고 있다. 『개벽』 신간이 계급적 시각에서 탈피하기 시작한 박영희를 문화면 기획자로 데리고 오려고 한 원인, 그리고 『혜성』 및 『제일선』의 문예면과 달리 1920년대 이후 조선문단을 대표했던 작가들을 대대적으로 문예면에 끌어들이는 원인 또한 여기에 찾을 수 있다. 문화전선론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문화를 기반으로 한 계몽운동을 전개하되 이를 사업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데 『개벽』 복간호의 목표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2) 조선신문 상품화 비판과 3대 신문 장편소설 논평

개벽사가 모색했던 민족적 신문화의 건설 과정에서 핵심적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식민지 조선의 신문들이었다. 『개벽』 신간 4호의 편집후기는 이번 호를 특별히 ‘신문특별호’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 편집후기에 따르면 개벽사는 조선신문의 현상향을 비판한 후 신문의 개선 및 신문과 관련된 지식의 보급을 꾀하기 위해 ‘신문특별호’를 준비했던 것이다.⁵³⁾

『개벽』 신간 4호는 조선신문의 역사를 개관하며 조선신문의 현 상향을 조망하려는 문제의식을 우선적으로 드러낸다. 차상찬의 「조선신문 발달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차상찬은 조선신문의 기원을 관보에서 찾은 후 조선신문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조선신문의 역사를 개관하고 있는 차상찬의 시선은 중국에는 3.1운동 이후 창간된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로 향하고 있다.⁵⁴⁾ 차상찬의 글이 조선신문의 변화 과정에 주목

51) 이상의 내용은 박영희, 「조선지식계급의 고민과 그 방향」, 『개벽』 1권 3호, 1935, 2~11쪽.

52) 이돈화, 앞의 글, 6쪽.

53) 「편집여묵」, 『개벽』 1권 4호, 1935.

54) 이상의 내용은 차상찬, 「조선신문발달사」, 앞의 책, 1935, 2~12쪽.

했다면, 황태욱의 「조선민간신문계 총평」은 현재 조선사회의 대표적 민간 신문인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논하고 있다. 황태욱의 글은 조선의 민간신문들이 어디까지나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 손에 조선민족을 들고 한 손에 東京, 大阪 등지의 상품”을 “팔아야 하는 것이 조선신문계의 딜레마”라는 표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글의 말미에서도 황태욱은 “신문사는 신문이라는 상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것을 팔아 이익을 보는 상점”이며 “신문 경영에 돈 내인 자본가나 임금을 받는 사원을 위하는 것이지 어째서 2000만 민족을 위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다.⁵⁵⁾

특집기획의 말미에 실린 김경재의 「조선신문의 대중적 비판」과 이돈화의 「조선신문의 특수성과 그 공과」는 황태욱이 던진 비판적 질문들과 연결되는 동시에, 그 답을 『개벽』 복간호가 내걸었던 ‘민족적 신문화’ 건설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경재는 “자유주의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여론을 대표한다는 신문이 생겨났음을 지적한다. 김경재가 볼 때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이 되는 자유무역주의, 더 나아가 자유주의 자체가 타격을 입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신문 역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경재는 조선의 언론이 이와는 또다른 특수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조선인은 조선신문에 기대와 애착심을 지녔으며, 신문을 상품으로 보지 않고 “어느 운동의 한 개의 부문기관”으로 보아 “일종의 권위를 부여”했던 것이다. 이는 신문사의 운영 주체들도 마찬가지여서 그들은 스스로를 “민족적 표현기관”으로 자처하기도 했다.

김경재는 당대의 조선신문에는 그 특수성이 사라졌음을 비판한다. 신문 발행이 완전히 상품화되면서 신문은 종래의 “지도적, 계몽적 태도”를 청산하고 “흥미 본위의 보도”에 치중하게 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김경재는 신문사의 지반과 자본으로 잡지 경영까지 하게 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신문의 태도가 그대로 잡지의 태도”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⁵⁶⁾ 김경재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복간된 『개벽』이 ‘신문특별호’를 만들고 신문의 상품화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 역시 신문사의 잡지 경영으로 대표되는 매체

55) 이상의 내용은 황태욱, 「조선민간신문계 총평」, 앞의 책, 1935, 13-21쪽.

56) 이상의 내용은 김경재, 「조선신문의 대중적 비판」, 앞의 책, 1935, 22-27쪽.

환경의 상업화 때문으로 판단된다. 『개벽』의 핵심 논자 이돈화가 「조선신문의 특수성과 그 공과」라는 글을 발표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돈화도 김경재와 마찬가지로 조선신문이 상품화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돈화는 다른 한편으로 조선신문의 특수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이돈화는 『개벽』이 기획한 ‘신문특별호’의 문제의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앞의 절에서 정리한 ‘민족적 신문화의 건설’ 과제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돈화는 조선의 경우 “신문의 상품을 다량”으로 소비할 만한 고객도 확보하지 못했고, “다량의 상품을 생산할만한 자본”도 가지지 못했기에 신문이 온전히 상품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이돈화는 신문이 “사회통제적 의식”을 지닌 상품이며 그 신문이 지니고 있는 주의 및 주장이 상품의 가치를 높게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이돈화는 조선의 신문 또한 신문을 상품화시키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회를 통제하는 “교사적 지위와 지도적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때 이돈화가 부각시키고 있는 지도적 정신은 곧 앞의 절에서 분석한 ‘민족적 신문화’와 긴밀하게 연동된다. 이돈화는 신문이 정당이나 정파의 주위에 의지하는 데에서 벗어나 민족적 권위와 민족적 도리를 지켜나가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돈화는 ‘민족적 신문화’를 강조할 때와 마찬가지로 조선사회의 특수성을 부각시킨다. 조선이 식민지이자 약소민족이며, 조선의 문화 또한 미성숙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돈화는 그 특수성을 잘 지도하고 조화롭게 만들 때 조선 신문의 공과가 나타날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⁵⁷⁾

조선신문의 상품화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조선신문이 가야할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개벽사의 관점은 곧 조선신문이 문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과도 연결된다. 김동인의 글은 이러한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김동인은 조선문단 부진 책임의 상당 부분을 조선신문에 돌리며 조선신문이 조선문단에 미친 영향을 강조한다. 김동인에 따르면, 대자본 출판사가 없는 조선에서 “신문은 잡지의 사업의 일부까지 대행”하고 있기에 조선에서는 문예가 성행하려면 신문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김동인은 조선 신문이 대중 독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중소설을 연재하고 있고, 기성작가에

57) 이상의 내용은 이돈화, 「조선신문의 특수성과 그 공과」, 앞의 책, 1935, 28-31쪽.

게는 강담을 강요한 반면 신진 작가에게는 지면을 내놓지 않기에 조선의 문예가 발달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을 김동인은 10년 전 『개벽』, 『조선문단』 등의 잡지가 흥성했던 시기와 대비하고 있다.⁵⁸⁾

김동인은 잡지 중심의 매체가 지배하던 시기의 조선문단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개벽사는 그 회상만으로는 3대 신문이 재비하고 있는 당대의 조선문단 상황에 개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3대 신문의 연재소설에 대한 정래동의 비평을 『개벽』 신간 4호에 수록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문단의 주요 문인들은 김동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신문연재소설을 평가할 가치가 없는 작품들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시기 정래동은 조선의 장편소설에서 우수한 작품을 구하는 게 무리한 일일지 모르지만 장편 연재소설을 무시할 수도 없고 “논평의 예외”로 돌릴 수도 없음을 강조한다.

물론 정래동은 현 단계 조선의 신문 연재물을 연애 문제를 형상화한 것과 역사적 사실을 다룬 것으로 나눈 후 조선의 작가는 아직 장편시대에 걸맞는 수련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정래동은 최근에 연재가 끝난 작품 중 현진건의 「적도」, 김기진의 「심야의 태양」, 강경애의 「인간문제」 등은 작가의 역작이었으며 윤백남, 홍명희의 역사소설은 기교가 우수한 작품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다.⁵⁹⁾ 정래동의 신문 연재 장편소설 논평을 수록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벽사는 조선의 신문이 상품화된 것을 비판했지만 신문이 조선의 문화에 미치는 현실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개벽』 신간 4호에 실린 ‘편집후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편집후기에서는 『개벽』 신간 4호에서 특히 자랑하고 싶은 것을 문예면이라고 말하며 “기성은 물론 신인 중에도 특별히 각 신문사 신춘현상에 일등 당선이 된 신진작가 두 분의 작품을 엇게 된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⁶⁰⁾ 그 두 명의 작가는 희곡 「탈선」을 발표한 박향민, 소설 「금따는 콩밭」을 발표한 김유정이다. 이 중 눈여겨볼 작가가 바로 김유정이다. 앞의 장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김유정이 매체에 발표한 첫 소설 작품은 『제일선』에 발표된 「산골 나

58) 이상의 내용은 김동인, 「상구고독(孀孀孤獨) 현 민간신문 - 한 문예가가 본 민간신문의 죄악」, 앞의 책, 1935, 32-43쪽.

59) 이상의 내용은 정래동, 「삼대신문장편소설논평」, 앞의 책, 1935, 1~7쪽.

60) 「편집후기」, 앞의 책, 1935.

그네]였으며, 이후 김유정은 『신여성』에 「총각과 맹꽂이」도 발표했다. 그러나 김유정은 193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낙비」가, <조선중앙일보>에 「노다지」가 당선되면서부터 더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전개해나간다.⁶¹⁾

개벽사는 『제일선』 때부터 김유정과 같은 신진작가의 소설을 수록했고 이때 『제일선』은 조선문학을 새롭게 구제할 주체로 신진작가들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5년 복간된 『개벽』에서 김유정은 신문사의 신춘 현상문예에 당선된 작가로만 의미화 되고 있으며, 그가 개벽사와 맺었던 관련성들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는 1930년대 중반 개벽사가 처해 있던 위태로운 위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 3대 신문사의 상품화 경향, 그리고 신문사들이 잡지 시장까지 진출한 것을 『개벽』 신간호는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지만, 그 비판 역시 3대 신문사의 압도적 영향력 하에 수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개벽사가 복간한 『개벽』의 마지막호 편집후기에서는 박영희가 검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3대 신문사와 개벽사의 불균등한 위상을 재편해줄 수 있는 논자로 영입했던 박영희마저 검거된 이후 개벽사는 ‘민족적 문화의 건설’을 통해 조선의 공론장을 재편하려는 의욕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5. 매체 지형의 변화와 1930년대 개벽사의 응전(應戰)

이 연구는 『해성』, 『제일선』 및 속간된 『개벽』을 대상으로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에 나타난 문예 담론을 분석했다. 앞의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1930년대 『해성』, 『제일선』 및 속간된 『개벽』지의 문예 담론은 문화 및 사회 담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들 잡지에 나타난 문예 담론을 분석하는 작업은 개벽사가 1930년대 조선의 사회·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 했는지를 드러내준다.

61) 전상국, 앞의 책, 1995, 25쪽.

1931년 발간된 『혜성』은 대중운동의 방향성을 고민한 시사 및 사회 문제 관련 기사가 많이 실렸던 반면, 상대적으로 문예면에 큰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 백철이 개벽사에 입사한 1931년 12월부터 『혜성』에는 조선문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시각은 『혜성』에 함께 실렸던 여타의 사회 관련 글들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혜성』의 여러 필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문화의 일반적 모순과 조선 사회·문화의 특수성을 동시에 인식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선을 구축하려 했던 것이다. 또한 조선사회의 위기에 대한 인식은 세계 열강의 현재 정세 및 유럽 각국의 문학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혜성』은 지속되는 검열을 비롯한 다층적 요인으로 인해 1932년 5월 제호를 『제일선』으로 바꿨다. 『제일선』 창간호의 권두언에는 농민이나 노동자와 같이 조선의 운동을 이끌 계급적 주체를 호명하는 어휘가 사라진 대신, 그 자리를 ‘문화’와 ‘문예’가 대체하고 있다. 그 결과 『혜성』에는 축소되었던 문예 지면이 『제일선』에서는 확충된다. 그 확충은 크게 두 가지 양태로 드러났다. 첫 번째는 논쟁 및 월평류 비평이 지속적으로 『제일선』에 실리게 되었다. 여러 신진작가를 의식적으로 등용한 것은 『제일선』 문예면 기획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다. 신진작가의 작품을 대거 소개했던 『제일선』의 기획에는 문단을 재편하려고 한 일관된 의도가 담겨 있다.

『혜성』에 실린 문예 관련 글들과 비교해보면 『제일선』은 조선문화의 후진성을 한층 더 강조했다는 점이 발견된다. 이는 1933년 『제일선』 특집기획 <문화전선의 SOS>에서도 확인된다. 그 특집에서는 사회운동과 관련된 논의를 생략한 대신 조선 지식계급 및 문단의 위기를 부각시킨다. 그 위기의 원인으로 『제일선』은 조선사회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그 후진성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문화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신진작가의 등용을 통해 조선 문학 전반을 재편하려고 했던 『제일선』 문예면의 기획의도와 맞물려 있다. 위기 및 후진성을 부각시킬수록 그 위기와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주체, 즉 신진작가를 등장시킬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진작가를 등용하여 조선문단을 재편하려고 한 『제일선』의 문제의식은 변화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없었다. 독자들은 신진작가를 등용하려고 한 『제일선』의 시도를 비판했고, 개벽사의 경영 상황마저 악화되며 『제일선』은 1933년 3월 이후 발간되지 못했다. 개벽사는

1934년 『개벽』을 속간하며 조선문화의 방향성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다시 표출했지만, 세계체제 및 조선사회의 급변하는 정세를 파악하며 조선의 사회·문화 전반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해성』의 문제의식, 기존의 문화적 질서에 대한 전선을 구축하려고 했던 『제일선』의 문제의식을 속간 『개벽』에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특히 문예 지면의 경우 『해성』과 『제일선』은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여 기존의 조선문단을 혁신하려고 한 의도를 드러낸 반면, 속간 『개벽』은 이광수, 염상섭, 김동인, 김기진, 주요섭, 김억 등 1920년대 『개벽』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을 재등장시키며 1920년대 『개벽』이 지녔던 주도적 역할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화전선을 구축하려고 했던 『제일선』의 문제의식에서 한걸음 물러서는 대신, 문화를 기반으로 한 계몽운동을 전개하며 조선의 민족성을 변화시키는 데 복간된 『개벽』의 목표가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개벽사가 모색했던 민족적 신문화의 건설 과정에서 핵심적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식민지 조선의 신문들이었다. 그러나 개벽사는 조선의 신문이 상품화된 것을 비판했지만 신문이 조선의 문화에 미치는 현실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개벽사는 3대 신문사와 개벽사의 불균등한 위상을 재편해줄 수 있는 논자로 조선문단에 상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박영희를 영입했고, 조선신문을 비판하는 특집호를 기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영입했던 박영희마저 KAPF와의 관련성 때문에 검거되자 개벽사는 ‘민족적 신문화의 건설’을 통해 조선의 공론장을 재편하려는 문제의식을 더 이상 이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개벽사는 결과적으로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매체 지형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1930년대 후반 조선사회의 공론장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1930년대 중반까지 개벽사는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 조용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전유하려는 시도를 해나갔다. 지금까지 분석한 『해성』과 『제일선』, 복간된 『개벽』은 그 시도를 잘 보여주는 예다. 대중적 성격을 지니는 잡지 『별건곤』을 발행했던 개벽사가 같은 시기 『해성』 및 『제일선』을 함께 발간했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1930년대 초·중반 식민지 조선의 매체들은 대중문화 뿐 아니라 대중운동이 쇠퇴해가고 있던 조선의 상황, 지식계층도 직면했던 생활의 위기, 상품

화되고 있는 조선 언론의 상황 등에 함께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문화의 영역을 중심으로 조선사회의 기존 질서를 바꾸어내기 위한 전선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그 시도가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가 지니는 입체성을 재조명하는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해성』, 개벽사, 1931~1932.
『제일선』, 개벽사, 1932~1933.
『개벽』 신간, 개벽사, 1934~1935.

2. 논문 및 단행본

- 김경연, 「근대문학의 제도화와 여성의 읽고 쓰기: 『신여성』을 중심으로」, 『코기토』 7, 부산대 학교 인문학연구소, 2009.
- 김도경, 「식민지 검열과 대중잡지 『별건곤』의 불온성」, 『어문학』 130, 한국어문학회, 2015.
- 김복순, 「별학의 탄생과 다원적 시민사회의 구상: 『별건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 대중서사학회, 2014.
- 김수진, 「신여성담론 생산의 식민지적 구조와 《신여성》」, 『경제와사회』 69, 비판사회학회, 2006.
- 김용휘,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서양철학 수용」, 『범한철학』 77, 범한철학회, 2015.
- 김은정, 「근대적 포탈 사이트(Portal Site)의 탄생-잡지 『조광』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51, 세계문학비교학회, 2015.
- 김정현, 「니체사상의 한국적 수용-1920년대를 중심으로」, 『니체연구』 12, 한국니체학회, 2007.
- _____, 「1930년대 니체사상의 한국적 수용-김형준의 니체 해석을 중심으로」, 『니체연구』 14, 한국니체학회, 2008.
- 박숙자, 「1920년대 사생활의 공문화와 젠더화: 『별건곤』에 나타난 비밀코드와 여성의 기회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7, 한국근대문학학회, 2006.
- 유석환, 「개벽사의 출판활동과 근대 잡지」,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_____, 「1930년대 잡지시장의 변동과 잡지 『비판』의 대응」, 『사이』 6권,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9

- _____, 「식민지시기 근대소설의 발흥과 천도교 매체의 역할」, 『대동문화연구』 7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 유인순, 「김유정 문학에 대한 인문지리적 접근」, 『김유정과의 향연』, 소명출판, 2015.
-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4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 이은지, 「마명 정우홍 연구를 위한 시론 1930년대 농민운동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2, 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 이철호, 「신경향파 비평의 낭만주의적 기원」, 『영혼의 계보』, 창비, 2013.
- _____, 「우주종교로서의 개벽사상: 이돈화와 김지하의 진화론(進化論) 수용 및 그 정신사적 계보」, 『한국학연구』 3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 전상국, 『김유정-시대를 초월한 문학성』,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 정용서,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의 편집자들」, 『역사와 실학』 57, 역사실학회, 2015.
- 정혜영, 「1930년대 종합대중지와 ‘대중적 공유성’의 의미-잡지 『조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5, 현대소설학회, 2007.
- 최수일, 『개벽연구』, 소명출판, 2008.
- _____, 「잡지 『조광』의 목차, 독법, 세계관」,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2014.
- 허 수, 『이돈화연구』, 역사비평사, 2011.

❖ ABSTRACT

The Literary Discourse of Media Published in the Gaebyeoksa and Medium Topography of Colonial Chosun

Kang, Yong Hoon

‘Hyesung’ and ‘Jeilsun’ are media that reveal the new searches of the Gaebyeoksa Publishing Company of the 1930s. However, studies in the past did not sufficiently analyze their significance. Furthermore, there are no analyses on how the critical minds of ‘Hyesung’ and ‘Jeilsun’ were linked to ‘Gaebyeok’, which continued publications in 1934. The 1930s when ‘Hyesung’ and ‘Jeilsun’ were published, was a time where the media of colonial Chosun was rapidly changing, and it was a time where literary magazines were increasing in quantity. In the 1930s, Gaebyeoksa attempted to actively respond to such changes reflected in the media. This was demonstrated through the publication of the new media ‘Hyesung’ and ‘Jeilsun’ and continuing publication of the ‘Gaebyeok’ magazine in 1935. This study analyzed the literary discourses shown in the magazines published by Gaebyeoksa in the 1930s based on ‘Hyesung’, ‘Jeilsun’, and the continued publication of ‘Gaebyeok’. Through such analysi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magazines published by Gaebyeoksa perceived the culture and literature of colonial Chosun in the 1930s and in which direction it tried to reorganize this.

Key Words : Hyesung, Jeilsun, media, Gaebyeoksa, 1930s, magazine, Kim You-Jung

■ 논문접수일 : 2018. 05. 10

■ 심사완료일 : 2018. 05. 31

■ 게재확정일 : 2018. 06. 30

